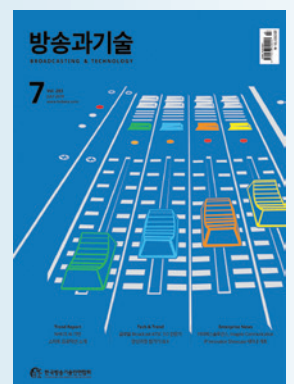


월간 방송과기술이 걸어온 길 표지로 보는 「월간 방송과기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987년 11월 창립 후 회원 간의 정보 교류와 소식 전달을 위해 1988년 7월 '방송기술인'이라는 얇은 책을 창간한다. 이후 호를 거듭할수록 지면의 양도 늘어나고, 광고도 더해지면서 점차 전문지로서 방송기술인에게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왔다. 2000년 이전 방송국과 기술인 등의 이미지를 표지에 수록하여 책의 성격을 분명히 했고, 2000년 이후 그래픽이미지를 도입하며, 미디어와 기술을 표현한 표지로 발행해오고 있다. 월간 방송과기술은 2004년 4월호가 100호, 2012년 8월호는 200호를 맞이하였으며, 2020년 12월 300호를 맞아 그 역사와 세월을 돌아보고자 한다.





월간 방송과기술 연혁과 의의

1988년 7월 ‘방송기술인’으로 창간하여 어느덧 300호에 이른다

1988년 7월 창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987년 11월 창립 후 회원 간의 정보 교류와 소식 전달을 위해 1988년 7월 ‘방송기술인’이라는 얇은 책을 창간했다. 안덕상 초대 연합회장은 그 발행의의에 대해 첫째,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을 것이요, 둘째,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역사를 만들어가고 쌓아간다는 데 있을 것이요, 셋째, 그들의 얘기를 보고 듣고 스스로 비판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하며, 최신 기술 자료와 회원의 일상을 수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보탬이 되길 바랐다. 신문, 잡지, 방송이 전부였던 시절,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지식 공유의 장이자 매개체로서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한층 높인 순간이었다. 1989년 5월, ‘방송기술인’은 ‘放送機術人’으로 제호디자인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격월간지로 출발했다.

‘방송기술인’에서 ‘방송과기술’로

그후, 1992년 5월에 ‘放送機術人’에서 ‘방송과기술’로 제호를 변경한다. 당시 제호 변경은 방송기술이 장비를 다루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커다란 덩어리 속에서 융화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됐다. 격월간지로 지속적인 발행을 하던 방송과기술은 2003년 7월(91호)에 새로운 바람을 탄다. 방송과기술이 월간화가 되면서 제호의 디자인도 바뀌게 된다. 월간화를 통해 점차 늘어나는 방송기술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방송계의 화두였던, DTV 전송방식 논란에 대해 정확하고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여 많은 방송기술인에게 사실을 전했고, 2004년 4월에는 100호를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를 축하했다. 그러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니, 2008년까지 발행 지면의 흑백화로 인해 사실적인 정보 전달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2009년 1월 전면 컬러화를 감행했다. 그 전까지 논문 위주의 비교적 어려운 글에서, 보다 트렌드에 맞는 글을 수용하여 다양성을 표현했다.

200호 그리고 300호

2012년 8월 방송과기술은 200호를 맞이하게 되고, 축사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 축하했다. 300호인 2020년 12월호까지 다양한 표지 및 디자인 변화를 거쳤고, 판형과 종이를 바꿔 좀 더 가벼우면서도 충실한 책을 만들고자 하였다. 영상, 음향, 조명 등 방송기술의 필수 분야뿐만 아니라 IT와 콘텐츠 제작 등으로 확장하여 지면을 채워오고 있으며, 세미나와 전시회 등을 수록해 새로운 이슈와 트렌드를 다루어오고 있다. 2020년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와 세미나가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미디어의 변화와 기술을 다루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월간 방송과기술 발행의의 (1988.7 창간호 머리말에서)

첫째,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을 것이요,
둘째,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역사를 만들어가고 쌓아간다는데 있을 것이요,
셋째, 그들의 얘기를 보고 듣고 스스로 비판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요.

- 안덕상 초대 연합회장 -

AI, OTT, VR 등 새로운 용어와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방송과기술 역시 그 변화에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기술 100호까지를 아날로그 시대, 200호까지를 디지털로의 전환, 300호까지는 디지털을 넘어 UHD, IT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때, 300호 이후에는 IT, IP에 대한 내용과 미디어 융합에 대한 주제가 더욱 늘어나고 미디어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인문, 사회, 문화 등의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00호 특집에서는 표지 변화를 통한 방송과기술의 역사와 발자취를 살펴보고, 그간 방송과기술 편집을 위해 힘써온 이전 편집장, 편집위원의 글을 통해 당시를 회상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현직 협회장과 주요 광고주의 축전과 함께 초대 편집장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예전 발간상황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1988년 7월	'방송기술인'이라는 제호로 창간 1~5호까지 순수한 회원친목을 위해 발행
1989년 5월	'방송기술인'에서 '放送技術人'으로 제호 변경. 1989년 5월 6호부터 방송장비광고를 추가하고, 지면을 대폭 넓혀 기술정보면을 강화. 격월간지로 전문성을 띄게 됨.
1992년 5월	24호부터 '放送技術人'에서 '방송과기술'로 제호 변경 방송기술이 방송이라는 큰 틀에 융화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1996년 5월	표지 및 내지디자인 변경
2003년 7월	91호부터 '방송과기술' 월간화, 제호디자인 변경 내용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격월간지에서 월간지로 단행
2004년 4월	100호 발행, 온라인을 통해 기사검색과 다양한 정보 제공
2007년 1월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과기술 PDF' 제공 시작
2008년 1월	표지 및 내지디자인 변경
2009년 1월	157호부터 전면 컬러화, 판형 변화 및 디자인 변경, 전국 대형유통서점판매 실시
2012년 8월	200호 발행
2016년 1월	홈페이지 개편 및 PDF 서비스 변경
2017년 1월	타이포그래픽으로 B.R.O.A.D.C.A.S.T.I.N.G. 표지에 형상화
2018년 1월	발간 30주년 기념으로 30년 전후의 장비 비교를 표지에 표현
2019년 1월	판형 및 광고, 내지 종이 변경
2020년 4월	2020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2020년 12월	300호 발행

월간 방송과기술 주요 연혁